

## Gary Yates 박사, 12권의 책, 세션 12,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호세아 1-3장, 2부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12장에 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강의 12,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호세아 1-3장, 2부입니다

.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관계, 그리고 이것이 야훼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일의 충격적인 가치가 사라지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메시지의 심각성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앓수르의 위기 상황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의 충격적인 가치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덜 사랑하시게 만드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에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관계에 헌신하십니다. 이혼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나는 구약 전체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볼 때 그것을 생각나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새 언약의 메시지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수백년 동안 옛 언약을 깨뜨린 후,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깨어진 관계를 야기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지우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의 일부는 사람들의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중 또 다른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에 보여주신 것보다 훨씬 더 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은 궁극적으로 그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관계와 그것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예와 비유를 살펴보면 우리는 또한 이 관계의 일부인 자녀들의 의미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장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름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 이사야에게는 스알야습과 마헬살랄하스바스라는 이름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들의 상황과 출생, 이 모든 것이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중 일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2절에 가서 너는 호렙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여 호렙 사람의 자녀를 낳으라 하였느니라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기 전에 이런 관계를 맺은 자녀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아이들을 입양하라고 요구하신 걸까요? 이 관계에 다른 아이들도 있었나요? 그러나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기간 동안 세 명의 자녀가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 보면 호세아가 아버지임이 분명하니 호세아가 들어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그곳의 언어는 호세아가 아버지임을 매우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둘째, 셋째 자녀의 탄생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면 그 생각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그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둘째가 다시 잉태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부르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하신지라.

여기에는 호세아가 아버지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아버지인가? 그녀는 다른 남자에게서 이 아이들을 낳았나요? 이름은 호세아가 자신들이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전달합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모릅니다.

구약성서에는 여자가 임신하여 딸을 낳는 것이 단순히 아이의 탄생을 묘사하는 일반적인 방법인 다른 곳도 있습니다. 내 생각엔 이 글이 단순히 의도적으로 여기서 모호함을 조성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은 호세아가 이곳의 아버지인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관계의 불성실함의 일부입니다. 셋째 아이가 그 관계에 태어날 때, 8절에 보면, 젖을 떼고 가차 없이 둘째 아이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여기서도 호세아가 아버지였다는 명시적인 진술은 없습니다. 그가 이 아이를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미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호세아가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름의 상징적 의미와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반영하는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 아이인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 아들이 태어나면 가서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르엘이 이스라엘의 한 장소라는 것은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장소의 이름은 무엇을 전달합니까?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뿌리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것이 이 지역의 비옥함과 이스라엘 땅에서 농업이 가장 번성한 곳 중 하나인 이곳과 관련된 풍요로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약속의 땅에 그의 백성을 뿌리고 그들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이스라엘이 긍정적인 이름이 아닐 것이라는 점입니다.

분명히,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는 개념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심판을 뿌리신다는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에 대한 개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고, 거두고 심는 전체 원칙에 따라 회오리바람을 거둘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함에 따라 그 결과는 더욱 배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즉 하나님이 농업에 풍요로움을 심으시고, 거기에는 씨앗을 뿌리고 심판을 거두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의 역사적 중요성은 실제 의미보다 여기에서 그 이름이 더 많이 사용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유혈 학살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피비린내 나는 폭력 사건이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아이에게 이 이름이 주어진다면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버지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남북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부인이 아들의 이름을 게티즈버그로 지으면 남부인에게 폭력과 유혈 사태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것입니다. 내 아내는 우리 아들의 이름을 그랜트(Grant)라고 부르고 싶어했는데, 나는 버지니아 원주민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Jezreel은 Gettysburg가 한 일을 남부인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더욱 현대적이고 현대적으로 만들기 위해 자녀에게 Columbine이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끔찍하고 폭력적인 내용을 즉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예후 가문과 예후 왕조는 여로보암 2세 때까지 계속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예후의 집은 극도로 피를 흘리는 대숙청으로 아합의 집을 멸절시켰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근처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중 일부는 아합과 이세벨이 받은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의 포도원을 위하여 나봇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 형벌은 범죄에 합당할 것이며, 그 결과로 그 유혈 사태가 아합의 집에 닥칠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 사건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절했을 때 일어난 피의 정결과 같은 피의 정결이 이스라엘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해석상의 문제와 딜레마를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예후의 집이 아합의 집에 행한 폭력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후의 집을 벌하실 것임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야?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후가 아합에게 행한 폭력을 승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후를 일으키셨고, 그의 등장을 예언적으로 선언하셨으며,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아합 가문과 그들이 신에 대한 헌신을 통해 가져온 우상 숭배 행위를 제거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미리 선언하셨습니다. 바알 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고 예후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가 한 일을 승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피 때문에 지금 예후의 집을 벌하시는가?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 숙청이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지를 보고 어쩌면 어떤 상황에서는 예후가 이 폭력을 자행하는 방식이 과도했던 것 같다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이 하고, 이스라엘 나라 곧 아합과 바알을 숭배하는 집을 깨끗이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예후는 자신의 일을 조금 너무 즐기는 것 같습니다. 예후가 권력을 잡으면서 행한 또 다른 일 중 하나는 이스라엘 집을 깨끗하게 한 것 외에도 남방 유다 왕 아하시야를 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청하신 것

이상을 행했습니까? 그가 아하시야를 죽인 것은 유다 왕도 다윗의 집에 속하였으므로 아합의 가문과 혼인 관계였음이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나아갔습니까? 열왕기하 9장 27-29절에 유다 왕 아하시야가 전쟁 중에 이것을 보고 벤학간 방향으로 도망하매 예후가 거기서 그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쏘라 하였더라. 이블르암 곁에 있는 구르 비탈에서 그들이 그를 병거에서 쏘매 그가 므깃도에서 먹다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성에 있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가문을 죽이지 않고, 이세벨을 죽이고 창밖으로 내던져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도를 넘은 것에 대해 벌을 주신 것입니까? 그가 다윗의 집을 대표하는 왕을 죽이는 데 너무 나섰습니까? 이번 숙청이 얼마나 극도로 피를 흘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예는 다음 장 열왕기하 10장 12-1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을 떠나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예후는 길에서 목자들의 왕 벤에에 있을 때에 유다 왕 아하시야의 친족들을 만났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야의 친척으로서 왕후와 태후의 아들들을 만나러 내려왔나이다 그가 이르되, 그들을 사로잡으라 하시니 그들이 그들을 사로잡아 죽였으니 42명이라 그 중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또 그는 아합의 집을 멸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아하시야의 가족을 죽였는데, 이들은 무고한 방관자들처럼 보입니다. 예후가 자행한 폭력은 너무 과격한 것입니까? 이번 숙청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는 매우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다. 이세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창문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녀의 피가 벽에 튀었습니다. 개들이 그녀의 시체를 먹어치우고 뼈 몇 개만 남았습니다.

아합은 죽임을 당하고 그의 피도 새어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씻어낼 것이고, 개들은 그것을 핥을 것입니다. 예후는 아합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의 가족 중 다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가족을 죽여 그 잘린 머리와 광주리를 이스라엘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피 묻은 숙청입니다. 바알 숭배와 바알 제사장을 없애시면서 그들을 모두 성전에 모으십시오.

아합이 바알을 열성적으로 지지했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지지를 볼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들을 안에 가두어 놓았을 때 그는 성전을 봉쇄하고 그들을 모두 죽여 죽였습니다. 그는 피 묻은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유혈 사태에 대해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나는 열왕기하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승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승인하신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우리가 호세아 1장을 읽어야 하는 방식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집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진술할 수 있습니다. 예후의 이름은 단순히 이스라엘 집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물려받았을 때 피의 대청소가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집 전체에 피의 대청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은 반복될 것이다. 또한 정권이 바뀌고 바알 숭배가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다른 어느 집보다 주님께 신실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예후의 집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다른 왕들 중에서 열왕기에서는 예후가 예외였고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멸절시켰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후는 다른 모든 왕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배도 때문에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예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는 예후 가문과 예후 왕조의 등장과 함께 있었습니다.

언약의 신실함과 헌신으로의 복귀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후의 노선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주님께 돌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번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국경을 확장하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여러 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통치자였지만 열왕기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일축되었습니다. 예후의 집이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과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구체적인 이유는 이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후가 처음에 승인한 일에 대해 책임을 묻습니다.

폭력과 유혈 사태는 북쪽 왕국의 일부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였고, 아모스서와 여로보암서에서 이미 이야기한 사회 정의의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피 흘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계를 빼앗는 폭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살인으로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유혈이 필요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또 다른 유혈사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뿌리신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은 우리를 이 사건으로 다시 데려가며 이스라엘 역사에 또 다른 피의 시대가 있을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시리아의 손에 의해 겪게 될 군사적 침략과 패배에 대해 경고하는 매우 적절한 방법입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인 이스르엘은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은 6절에 보면 고멜이 낳은 딸이 될 것인데,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여 불쌍히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르엘과 마찬가지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헤세드의 신이다.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고갈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할 기회가 없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결코 사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리라 그래서 북왕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다 소진시켰습니다. 남쪽 왕국은 아직 그 시점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들은 722-586년부터 별도의 독립체로 계속 존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북쪽 왕국도 그랬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특히 역사상 이 시점에서 호세아의 임무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다 소진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셋째 아이와 호세아 8절은 고멜이 가차 없이 젖을 떼고 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내 백성이라 부르지 말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니라 그래서 셋째 아이의 이름은 로아미(Lo-Ami)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약 관계의 완전한 단절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없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적인 권리가 더 이상 없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구약 전체에 걸쳐 있는 언약의 공식입니다.

그 관계는 일시적으로 깨지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망명의 심각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출애굽기 34장, 6장, 7장으로 돌아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심하고 심각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가 이 백성과 관계를 끊으라 말씀하셨느냐? 이제 완전한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일에서 일어나는 일의 충격적 가치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용서를 강력하게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수백년 동안 이 언약을 깨뜨렸을지라도 이혼이 있을지라도 회복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장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방식은 이 세 자녀의 이름이 심판과 깨진 언약의 개념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들은 1장 끝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에서 반전되어 있습니다. 이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의 의미를 지닌 이 이름들은 미래의 회복을 약속하는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의 시작 부분에서 선지자의 언약적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했던 선지자에 대한 토론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고, 언약을 어겼습니다. 당신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녀의 세 이름은 우리가 그 시점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네 번째 요소가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심판이 있는 후에는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선지자들, 심지어 아모스 선지자도 아홉 장의 가차없는 심판을 말한 뒤에는 언제나 궁극적으로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들에서 그것을 봅니다. 매우 강력하게 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1장 10절과 9절 이후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10절을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구약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까? 창세기 12장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하리라. 앞 구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언약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반영합니다.

언약의 파기, 언약의 파멸은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로암미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하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내 백성이 아닌 로암미가 되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북왕국과 남왕국이 다시 연합하여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 올라갈 것이라, 이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으로 사용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유혈 사태와 폭력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땅으로 다시 모여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적으로 쓰이던 이름들이 뒤집어져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에도 똑같은 말장난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날, 복귀의 날, 장래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겠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리라 포로 생활을 박탈하는 과정의 일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빼앗아가실 것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포도주와 포도나무와 곡식을 신들, 즉 바알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께서는 내가 그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빼앗고 마침내 그들을 광야로 유인하여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빼앗아 간 농작물과 생산물을 그들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폭풍의 신 바알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에 약속하신 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것을 얻었고 저희가 이 풍성한 형통을 누리게 하느니라

이 일이 일어나면 그들이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뿌리시느니라. 포도주는 왜 있고, 포도나무는 왜 있고, 기름은 왜 거기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으시고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긍정적인 이름이 되고 이스라엘 계곡의 농업적 번영에 대한 모든 생각이 여기에 반환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것을 땅에 뿌리리라. 하나님은 그곳에 단지 농작물을 뿌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그 땅에 뿌리실 것이며, 그들은 그곳에 영원히 거주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나는 최종 회복이 일어날 때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가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어머니의 연민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함이라는 단어는 자궁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으므로 여기에는 어머니의 연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함을 불쌍히 여기고 내 백성이 아닌 로아미에게 이르기를 너는 아미요 너는 내 백성이라 그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리라 따라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헌신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불성실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그에게 불충실합니다. 호세아는 불륜한 애인들을 뒤쫓고,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도, 공식적인 이혼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호세아는 돌아가서 아내를 사서 그 관계를 회복합니다. 언약의 회복은 남편과 아내의 결혼에 반영됩니다.

복원은 아이들의 이름에도 반영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아미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 궁극적으로 다시 언약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모든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좋아요, 이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를 인하여 예후의 집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할 때, 예후의 집에

대한 구체적인 형벌은 곧 일어났습니다. 예후 가문의 멸망은 기원전 752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722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앗수르에게 멸망됨과 함께 일어날 이스라엘 집에 대한 회계처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전달되는 약속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이름. 이것을 보면 바울은 호세아 1장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에 관해 말씀하시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것이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문맥상 분명히 그 구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내 백성이 아닌 로암미가 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9장 24-26절의 이 구절에서 매우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우리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한 백성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데려오셨는가? 호세아서에도 내 백성 아닌 자를 내가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말한 바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그 구절을 어디서 읽었습니까? 호세아 1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택하여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초점을 맞춘 구약의 한 구절에서 바울은 신학적으로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에게 적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로 구성된 백성을 형성하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구절이 됩니다.

따라서 파탄된 결혼 생활, 매춘의 자녀에 대한 이미지로 전달되는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자라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저는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또는 하나님과 유다의 결혼을 결혼으로 비교하는 개념에 대해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은유를 사용하여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핵심 개념 중 일부를 간략하게 요약하세요.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즉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 일반적으로 철학이나 조직신학의 형태로 우리에게 설명되거나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비유의 형태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이시며 천둥같은 폭풍우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을 통해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 사용된 강력한 은유와 이미지 중 하나는 가족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며, 이스라엘의 남편이십니다. 고대 근동의 결혼에는 오늘날의 결혼과는 확실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전달하려는 분명한 생각과 개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 중 하나인 이 비유를 사용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단순히 결혼의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를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과 영적 간음의 이미지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꽤 충격적인 말을 사용할 것입니다. 언어는 매우 그래픽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구약성서의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이것을 포르노 예언적 언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분류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언어와 이미지 중 일부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는 오래전에 내가 너희 멍에를 꺾고 너희 결박을 끊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봉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모든 언덕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창녀처럼 몸을 굽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음행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행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는 2장에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불안한 어린 낙타와 같고, 열기 속에서 바람을 쿵쿵거리며 광야에 익숙한 들나귀와 같습니다. 그녀의 욕망을 억제? 당신은 거짓 신들을 쫓는 열기 속에 있는 동물과 같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불쾌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그런 일을 직접 시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길을 어찌 그리 잘 지도하시며 악한 여인에게도 주의 길을 가르치셨나이까.

당신은 하나님께 불충실할 뿐만 아니라 매춘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정말 잘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사악한 여자라도 당신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메시지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얼굴에 실제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심의 문화 속에서, 간음과 불륜, 성적 부도덕과 그로 인해 전달되는 모든 것과 간음 자체가 중대한 범죄였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그토록 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까? 그가 화를 내고 변덕스러운 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을 창녀로 비유할 때,

그것은 단지 부도덕한 생각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꽤 충격적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희가 이런 일을 거듭하여 예루살렘이 소돔보다 더 나쁘다고 말할 것이다. 소돔은 악한 도시요 방탕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더 많은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더 나쁩니다.

예레미야는 북쪽 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혼하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남쪽 왕국 유다에서는 간음으로 인해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로부터 교훈을 얻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내 백성과 창녀의 차이점은 창녀가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연인과 함께 자도록 돈을 지불합니다. 적어도 매춘부는 그 대가를 받습니다. 당신은 연인을 쫓아 나가서 그들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선지자들은 이 충격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사야서 서두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성서의 사악함의 전형이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소돔의 통치자들로 언급됩니다.

에스겔 23장 20절,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들의 군인들의 성기가 말이나 당나귀만큼 컸기 때문에 이집트와 동맹을 탐냈습니다. 와, 이 이미지들은 꽤 그래픽적이네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배반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주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즉,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그분은 거룩하지 않은 백성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와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죄가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법적 관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배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목회자라면 누구나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과 경험은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불성실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치유하려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힘이 필요합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은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이와 관련된 충격과 분노, 배신과 수치심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선지자들이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 존재하는 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맡아 뒤집어서 아내가 불성실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남편으로 삼아 아내의 역할을 해보세요.

당신은 그에게 불성실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이 이미지가 여성이 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종종 말합니다. 그러나 그 비유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남자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타락시킨 자들이며, 그들의 길을 바꿔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에 직면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혼 비유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두 번째 사실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헌신을 우리에게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중요한 언급이 적어도 두 번 나옵니다. 나는 이것들을 언급하고 그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는 항상 그럴 것이다.

그분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시 가서 친구의 사랑을 받는 여자를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합니다.

이 관계가 시작될 때 애초에 왜 이 관계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세아 11장 1절에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 있는 놀라운 일,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충격적인 가치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11장, 8장,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시킨 성읍들처럼 만들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반동합니다. 나의 동정심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인간 수준에서 우리는 화가 난 남편이 불성실한 아내에게 보복적인 복수를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여자가 나에게 불성실한 후에도 나는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모델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조, 또는 이 책에 있는 것과 대조되는 점은 이 책이 이스라엘의 사랑을 말할 때마다 야훼는 결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여러 곳에는 이스라엘의 연인이나 그들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결코 야훼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그들이 누린 축복을 다른 신들에게 돌립니다. 그들은 야훼가 아니라 그 신들이 그것의 근원이라고 믿고, 그 결과로 가나안 숭배와 관련된 바알과 다산의 신과 여신들에 대한 잘못된 헌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사랑에 대한 언급을 봅니다(2장 5절, 7절, 10절, 12절, 13절, 3장, 1절, 4장, 18절, 9장, 1절, 9장, 10절). 12장 7절, 그리고 주님은 결코 이것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성실한 아내와 항상 아내를 보살피는 충성스럽고 인자한 남편이 대조되는 것을 보면, 그녀는 그 보살핌과 사랑을 다른 신들에게 돌리고 돌이키는 것을 볼 때, 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릇된 헌신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삶에서 종종 잘못된 헌신을 하는 것들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우리가

안전과 안전의 궁극적인 원천으로 여기는 모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다는 점에서, 이는 종종 우리의 사역이 되는 목회자들에게 직업이든 가족이든 우리가 잘못된 헌신을 하는 모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 운동 경기, 레크리에이션, 직업, 발전, 경력, 번영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 오늘날 선지자가 있었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제기할 문제가 바로 그런 종류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스라엘은 헌신을 잘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세 번째로 상기시키는 것은 이미 다뤘던 남편과 아내의 이미지와 은유, 심지어는 이 불성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치 않고 계속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이와 열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것을 보았습니다.

11장 8절과 9절.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인간의 성향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람 안에서 물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보고 말합니다. 왜 이 여자와 함께 있고 싶나요? 왜 당신은 언약 안에서 이 관계를 계속하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다시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은 언약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에선 포로 생활이 이혼이라는 생각이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끊으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혼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 이사야 5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겪은 후에 돌아올 것을 권고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때에는 포로 생활 중에 결혼 관계를 끊은 이혼 증서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4장 4-6절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당신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와 과부 시절의 치욕을 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을 만드신 분은 당신의 남편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당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사야 62장도 마찬가지다. 헵시바. 히브리어가 더 잘 들리네요.

그리고 당신의 땅은 결혼했다고 불릴 것입니다. 불라. 주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신명기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불순한 일, 곧 간음이 아닌 일을 발견하면 그 남자는 그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그를 내보낼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혼이 발생하면 여성을 위한 보호 장치 중 하나는 남성이 더 이상 그 여성이 다른 남성과 결혼한 경우 다시 돌아가서 재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혼하면 그 여자는 재혼할 것이라는 당연한 기대가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첫 번째 결혼은 재개되거나 복원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놀라운 점은 이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단순히 재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 전반에 걸쳐 주님께 연쇄적인 불신앙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을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법을 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멜이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그녀를 다시 사서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명기 24장의 율법을 폐하신 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과 2절에서 예레미야는 이혼법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명기 24장의 이혼법에 대해 본문 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남자가 그의 아내와 이혼하고 그 여자가 그에게서 떠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사람이 그에게로 돌아오겠느냐? 당신이 기대하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깊기 때문에 자신의 율법까지도 기꺼이 제쳐두셨습니다.

결혼 비유는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내에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과 15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결혼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혼여행에 가장 친한 친구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일이 신혼여행의 목적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전적인 충성과 헌신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 형벌의 엄중함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엄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일을 보고 이것이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불충실한 것이 아니라 역사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 불충실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호세아서에서 결혼에 대한 비유와 간음과 불신앙에 대한 개념이 특별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들이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드리는 충성심과 헌신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편이나 아내를 배반하는 것과 같으나 바알과 바알과 연합한 가나안의 신들과 여신들을 숭배하는 일에는 성적 부도덕과 다산 의식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적 부도덕에 대한 생각도 이것의 일부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숭배에는 일종의

신성한 매춘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들이 성전에서 매춘부와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땅에 어떤 형태의 비옥함을 보장한다고 믿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원에서의 매춘, 제의적 매춘은 단순히 사람들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사원을 위한 돈을 모으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종교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이교적이고 부도덕하며 성적인 다산 의식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과는 달리 여호와께는 아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는 방법으로 성적인 측면을 이스라엘 종교에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증하고 여호와께 가증히 여기는 이방 풍속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우리는 호세아 4장 10-14절에서 이러한 다산 의식과 성적 부도덕의 측면이 어떻게 이스라엘 종교에 유입되었는지에 대한 반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간단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음행을 행할지라도 번성하지 못할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음란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좋아하므로 지각을 앗아가느니라.

내 백성은 나무 조각에 대해 묻고, 그들의 견는 지팡이는 그들에게 신탁을 주지만, 음란한 영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행을 하려고 그들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산 위에서 참나무와 미루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제사를 사르나니 그 그들이 좋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고 너희 신부들이 간음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며 너희 신부가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가음이니라.

그들은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나니 지각 없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에서 행해지는 비유와 표적행위의 충격적인 가치를 잃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에 관한 이스라엘 언약의 위대함을 상기시켜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언약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며,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에 대한 사랑에서 떠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순결하고 거룩하며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은 12장에 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12강,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호세아 1-3장, 2부입니다.